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February 2011



## **Contents**

- **UNEP FI 동향**
- **Asia Pacific 지속가능 금융**
- **UNEP FI Korea Group Activities**
- **New Publications**
- **Training Registrations**



## 멕시코, 3/17~18, 환경·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훈련 워크숍 진행



환경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ESRM 도구와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리스크 관리자들과 분석가들을 위한 워크숍이 오는 3월 17일과 18일에 걸쳐 멕시코 시티의 Club de Banqueros 에서 진행된다. 본 워크숍은 멕시코은행연합 ([Mexican Banking Association](#))의 협력과 지원을 받았다.

[상세내용 참조](#)

## 캐나다, 3/31, 임직원 환경 인게이지먼트 워크숍 개최

UNEP FI의 NATF (North American Task Force)가 주최하는 워크숍 *Making Environmental Employee Engagement Happen* 이 오는 3월 31일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열린다. 본 워크숍은 북미 금융 서비스 산업 내 환경 임직원 인게이지먼트 협력체들의 현황을 알아볼 계획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과 연구원들과의 공개 토론회가 진행 될 예정이다.

NATF 의 보고에 따르면 본 워크숍의 주제와 같이 환경 임직원 인게이지먼트가 이 행사 중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의 결과는 NATF 멤버들의 환경 임직원 인게이지먼트 실천도입 현황의 개관과, 금융기관의 기업문화 내에 포함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분야의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na@unepfi.org](mailto:na@unepfi.org)

## 독일, 4/4, 금융계의 환경·생태계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워크숍 개최

일시: 2011년 4월 4일 | 10.00 - 16.00

장소: HypoVereinsbank, UniCredit Bank AG, Prannertr. 4 | 80333, Munich | Germany

UNEP FI의 VFU(HypoVereinsbanks and the Verein für Umwelt-management und Nachhaltigkeit)는 금융계의 환경·생태계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지역 워크숍을 개최한다.

본 행사는 금융계 자연자산과 시스템적 리스크의 통합과정에 대한 핵심지도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본 워크숍은 자연자본정책 (Natural Capital Statement)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들의 인게이지먼트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UNEP FI 는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이슈를 내부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biodiversity@unepfi.org](mailto:biodiversity@unepfi.org)



## 호주, 기후변화 적응(완화) 워크숍 개최

지난 2월 3일, 시드니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14개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UNEP FI Australasia Group 이 금융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중점을 둔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워크숍을 주최했다. 발표자들은 UNEP FI, Met Office Consulting, Cooperative Research Centre for Climate and Weather Risk Technologies,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 and Colonial First State을 포함한 각 기관들의 멤버로 구성되었다. 본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워크숍에서 진행된 프리젠테이션들은 [Australasia Group 웹 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UNEP FI 멤버 활동: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지대, 탄소금융과 소액금융(마이크로파이낸스)을 통한 LED 조명 사업 확대

2011년 2월 23일,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경제적 오프 그리드 점등장치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인 Nuru Energy와 함께 탄소배출권 협정(Certified Emission Reduction Agreement)을 런던에서 발표했다. 본 은행은 10년 동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지대에서 발생하는 수 만개의 탄소배출권들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유럽 연합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EUETS; the European Union's Emissions Trading System) 내에서 사용 가능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등유사용 램프를 재충전 가능한 LED (Light Emitting Diode) 램프로 대체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 혁신적인 LED 램프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환경 친화적인 대안으로 전기 그리드 접근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Nuru Energy 의 유통전략은 자사의 LED들과 다른 오프 그리드 제품들을 지방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을 통하여 지역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지역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은 Nuru Energy 에게 교육을 받아 장비를 갖추었고, 소액금융기관들(MFIs; Microfinance institutions) 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

## FT/IFC 지속가능 금융 어워즈 - 3/14 등록마감



FT/IFC 지속가능금융 어워즈(FT/IFC Sustainable Finance Awards)의 참가 등록 마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본 시상식은 Financial Times 와 IFC 가 주최하는 주요한 세계적 행사로써, 사업에 ESG 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과 혁신을 보여준 금융기관들을 시상할 것이다. 본 행사는 2011년 6월 16일, 영국의 런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의 카테고리들을 참조하여 2011년 3월 14일까지 지원 바람

- Sustainable Bank of the Year
- Sustainable Asset Owner of the Year
- Sustainable Asset Manager of the Year
- Achievement in Basic Needs Financing
- Achievement in Financing at the Base of the Pyramid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은행들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카테고리들은 모든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

연락처 Michael Lundby: +44(0)20 7873 3837 or [mike.lundby@ft.com](mailto:mike.lundby@ft.com)

[상세내용 참조](#)



##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시장, 5년 후 421% 성장”



파이크 리서치 (Pike Research)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시장이 5년 후 421%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의 건설업자들이 최근 들어 더욱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설비 및 건축물 개선작업에 전념하면서 에너지 기업들도 이에 따른 설비전반의 에너지 절약을 제시하고 있다. 파이크 리서치의 선임 분석가, Andy Bae 는 “많은 아시아 기업들이 에너지 보존에 헌신하고 있다” 고 밝혔고, 2015년에는 중국의 에너지 절약 산업이 170억 달러로 성장하여 아시아태평양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세내용 참조](#)

## 2011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 총회 개최



2011년 2월 28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관에서 2011년 신재생 에너지협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본 총회는 신재생협회가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내수 및 해외수출 산업화와 회원사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행사 중 2011년도의 협회 운영목표로 내수기반화, 수출산업 활성화, 회원사 서비스 제공 강화, 협회 위상 및 시스템 강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상세내용 참조](#)

## 중국, 제 12차 5개년 계획: 녹색산업 육성



중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 12차 5개년 계획에서 녹색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중국은 2009년 베이징올림픽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녹색산업육성이 강조된 제 12차 5개년 계획은 환경과 에너지 산업이 중국의 미래 신수종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상세내용 참조](#)



## 한국·대만, 태양광 사업 적극 투자



최근 삼성 정밀 화학은 미국의 MEMC 와 함께 태양 전지용 폴리실리콘 사업의 투자에 나섰으며, LG전자는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국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만의 전자업체들 역시 태양광 사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 는 독일의 센트로솔라와 태양광 모듈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만의 최대 LCD 업체인 AUO 는 일본 폴리실리콘업체 M.Setek의 지분을 인수하여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과 대만의 전자업체들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태양광 산업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세내용 참조](#)

## 일본, 스마트 에너지 하우스 건설 가속화



최근 일본에서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주도로 '스마트 하우스'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 하우스는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 내에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 등을 사용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 개발의 가속화에 발맞춰 세키스이하우스와 오사카가스는 '스마트에너지하우스' 실험용 주택을 공개했다. 이 주택은 IT 기술을 적용하여 태양전지와 리튬이온 축전지, 고효율 연료전지 등을 갖춘 것으로 우수한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준다.

[상세내용 참조](#)

## 2012 여수 엑스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태양광 파고라(Solar Pergola), 솔라트리(Solar Tree)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원회는 개최시기를 고려하여 박람회장의 전역에 43%의 그늘을 제공하고, 체감온도를 줄이는 온도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3대 축제인 여수 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여수신항 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상세내용 참조](#)



## 태국, 무공해 쓰레기 소각기술 이용 전력생산



태국이 넘쳐나는 쓰레기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독일의 무공해 소각로 기술을 이용한 쓰레기 매립을 통해 하수오염을 줄이고, 태국의 심각한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표를 둔다. 독일의 무공해 소각로 기술은 불로 태울 때 열 분해와 기화하는 성질을 동시에 이용하여 공해 발생을 줄이고, 쓰레기가 탈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사전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상세내용 참조](#)

## 인도, '풍력발전량 비례 지원제도' 지속운영



Bloomberg 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정부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업체의 발전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정부 보조금을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풍력발전량 비례 지원제도'(Generation-Based Incentive)는 지난 2009년, 보다 효율적인 풍력단지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력 공급량에 따라 풍력발전단지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인도 재생 에너지부 장관, Farooq Abdullah는 공급량 비례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계속 운영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보조금의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세내용 참조](#)

## 건설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개발



한국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는 건설 폐기물을 분리하여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 단순히 매립되었던 건설폐기물에서 폐목재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이 본 개발을 통하여 추가 확보 가능하게 되었다. 본 '건설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분리·선별 기술'은 하루 건설폐기물의 7천 톤 중

2520 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게 하여 총 400억 원 규모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세내용 참조](#)



## 사학연금 등 7개 금융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참여



사학연금이 국내 4대 연기금 중 처음으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에 서명기관으로 참여하여 전세계 주요 상장사들의 탄소정보공개를 촉구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사학연금과 함께 현대증권, LG 생명, 피닉스 자산운용, 우리투자증권, SC제일은행 등이 참여하여 올해 CDP 서명 금융기관이 28개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CDP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현상이 곧 국내기업의 탄소정보공개와 탄소금융확산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전세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후변화관련 운동으로써, 2003년부터 매년 전세계 주요 상장기업에 탄소경영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투자와 대출에 반영해 저탄소 사회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이다.

[상세내용 참조](#)

## UNEP FI KG Activities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우리은행, '그린 파트너십 실현'



- 현대 산업개발과 함께 총 12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시중보다 저렴한 우대금리로 협력회사에 자금을 대출하는 펀드) 조성, 협력사 자금지원: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에코 마일리지 카드 발행: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일리지 가 쌓이고,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친환경 녹색소비 독려

### 자본시장연구원, 녹색금융 개선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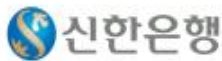


- 녹색성장산업의 미래를 '현실성 있게' 조명: "돈(녹색금융)이 있어야 산업(녹색성장)이 클수있다"
- 관련 상품과 배출권 시장 연구 매진



## 한국수출입은행, 美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 1억 지원

- 한국수출입은행이 작년 11월 그린파이오니어 프로그램개발에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의 풍력발전사업에 1억 달러 지원
-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린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풍력 등 녹색성장산업의 수출산업화 적극 지원할것” 이라고 밝힘
- 한국수출입은행이 2.7억 달러 상당의 스위스 프랑채 발행 : 향후 원전, 녹색성장, 자원개발 등 국가전략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사용될 예정



## 신한은행, 사외이사제도 개편 및 투명성 경영 도약

- 노인, 여성, 청소년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함께 녹색금융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 확보
- “외형 이외에 수익성, 건전성, 생산성 등 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고객 만족도, 사회공헌도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은행의 순위가 매겨져야 한다”고 강조



## 하나은행, 하나그린시스템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참여하기 위해 하나그린시스템 구축
- “하나그린시스템”: 데이터 센터에서 운용중인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 스토리지 등 IT 장비와 항온항습기, 변압기 등 설비부분까지 세분화 해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탄소비용으로 산정해내는 시스템
- 에코 마일리지 카드 발행예정: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쌓이고,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친환경 녹색소비 독려



## 국민은행, 전략적 기업금융 확대: 녹색금융 조직역량 강화

- 중소기업과 동반자 관계 구축, 미래 동반성장 기반확보
- 일시적 경영난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확대: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녹색성장기업, 소상공인 등에 지원예정

## 현대해상, 중고품 쓰면 보상받는 車 보험 출시



- 금융감독원의 자원 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기여방안 모색에 따라 현대해상이 중고부품 활성화 자동차 보험상품 도입 - 차량 수리 시 중고품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상품 판매

### “하이라이프 파워에코(ECO)운전자보험”:

1.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녹색할인제도 도입: 계약자가 약관/증권을 종이 가 아닌 이 메일로 수령 할 시, 첫 번째 내야 하는 보험료의 9% 할인
2. 탄소배출 저감활동에 동참하는 자전거 이용자 (자전거 관련 특약 가입자) 나 자동차 10년 무사고 운전자 등 에코드라이버의 경우, 가입 후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 할인

# New Publications

## 신간 발행: ‘책임자산 투자전략 Toolkits 이행’



UNEP FI 자산 워킹 그룹은 toolkits의 네번째 시리즈, [Implementing responsible property investment strategies](#) 를 출간했다.

본 toolkit 은 자산 투자자들이 기관 내 책임 자산 투자(RPI) 전략 시행 시, 고려하고자 하는 핵심 이슈들을 담고 있다. 이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ESG 성과에 대한 통찰을 자산 가치에 연결 짓는 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분석이 전략적 자산 배분, 주식 선택 및 자산관리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NEP FI 의 책임 자산 투자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NEP FI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www.unepfi.org/property](http://www.unepfi.org/property)



## 워싱턴, 10/19~20, UNEP FI Global Roundtable – 지금 등록가능



2011년 The Global Roundtable 이 오는 10월 19일과 20일에 걸쳐 미국의 워싱턴 D.C. 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4월에 브라질에서 진행될 UN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 (Rio +20) 보다 7개월 앞서 개최될 이 Global Roundtable은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가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Global Roundtable 의 참가비는 다음과 같다.

| Category                 | Early Bird (before 2011.07.15) | Full Registration |
|--------------------------|--------------------------------|-------------------|
| Participants             | 1500                           | 1800              |
| UNEP FI Signatories*     | 무료                             | 무료                |
| - extra person           | 1125                           | 1125              |
| NGO/ IOs/ Academics rate | 1125                           | 1620              |
| Government               | 무료                             | 무료                |
| Advisors*                | 무료                             | 무료                |
| - extra person           | 1350                           | 1620              |
| Sponsors                 | 무료                             |                   |
| Press / Speakers         | 무료                             |                   |

자세한 사항은 웹 페이지 참조: [www.unepfi.org/washington](http://www.unepfi.org/washington)

[참가신청 링크](#)

## 4/4~25, UNEP FI 기후변화 온라인 강의 – 등록 마감 임박



UNEP FI 멤버: 50% 할인 쿠폰 제공 (연락처: [cc-training@unepfi.org](mailto:cc-training@unepfi.org))

UNEP FI의 다음 온라인 강의인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와 기회” (“Climate Change: 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nance Sector”)가 2011년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강의는 금융기관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개발을 지원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경영진에게 개인자산, 기후변화, 기후관련규정 등 다양한 방면의 인터페이스에서 기본지식을 갖추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수강신청 링크](#)

본 온라인 강의는 UNEP FI,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InWent)와 INCAE Business School의 협력 결과이며 Ecobanking Project의 지원을 받았다. 처음에 스페인어로 2006년에 Bank of America의 지원으로 UNEP FI Latin American Regional Task Force에 의해 출시되었으며 2007년에는 FMO의 도움으로 영문판이 출시되었다.



## 지속가능개발 리더십 프로그램 (4/12 까지 등록가능)



LEAD Europe은 '2011 LEAD Europe Fellows Programme-개발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고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90여 개국의 지속가능성 리더 2200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등록 마감일은 2011년 4월 12일이며 장학금이 지급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참조:

[www.lead-europe.org](http://www.lead-europe.org)

## 지속가능 에너지 금융 여름 아카데미 (7/17~7/22)

Frankfurt School (UNEP 기후·지속가능 에너지금융 협력센터)은 2011년 7월 17일과 22일에 걸쳐 진행될 지속가능 에너지 금융 여름 아카데미(Sustainable Energy Finance Summer Academy)를 소개한다.

본 아카데미의 강의는 은행원, 프로젝트 관리자, 투자자들과 국제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컨설턴트들에게 맞추어 구성되었다.

[상세내용 참조](#)

## 그린빌딩 금융과 투자 회의 (3/23~3/24)

2011년 3월 23일과 24일에 걸쳐 “그린빌딩 금융과 투자: 실천이행, 정책과 리서치” (“Green Building Finance and Investments: Practice, Policy and Research”)를 주제로 한 회의가 네덜란드의 Maastricht에서 진행된다.

이 학술 토론회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학자들이 함께 그린빌딩 금융, 그린빌딩 기술, 기업과 정부의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그린빌딩 금융 퍼포먼스의 새로운 방법들을 다루는 것을 특색으로 삼는다.

지금 등록 가능: [www.conference.epri.eu](http://www.conference.epri.eu)

## 3월 14일, 환경 채권 회의 개최



UNEP FI는 *Environmental Finance*가 개최하는 2011 환경 채권 회의 (Environmental Bonds Conference 2011)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2011년 3월 14일 런던의 Guildhall에서 개최되는 이 환경 채권 회의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표자들이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수십억 규모의 추가 자산을 끌어들이는데 채권시장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최근의 의견들을 검토하고 설명할 것이다.

참가비 10% 할인 희망자는 참가 신청란에서 "Standard Registration Package" 항목 선택 후, "quote EB11/UNEP/10" 명시 바람

[전체 프로그램 \(발표자 명단\)](#)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ECO-FRONTI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25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http://www.ecofrontier.com)

